

01 교회소식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감동이 가득한 '2018 부활절 감사예배와 성찬식 및 지역장·조장·구역장 헌신예배 소식.

02 생명의 말씀

부활의 의미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결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생명을 다하여 진리를 행함으로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영혼을 살리는 권능의 사역!

은혜와 감동의 대만 지교회 집회 소식과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통해 사역에 힘을 얻은 아르헨티나 조세피나 아르따사 목사의 서신.

04 간증

“죽음 앞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육 간에 죽음 앞에서 새 생명을 얻은 유윤종 성도와 심장박동이 멈춘 태아가 기도로 정상인 된 인도 예루사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832호 2018년 4월 1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부활은 우리의 소망, 그리고 기다림!”

2018 부활절 감사예배 및 성찬식 거행



기독교 3대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을 맞아 4월 1일 주일 대예배를 '2018 부활절 감사예배'로 드린다. 복음을 전하는 GCN 방송(www.gcntv.org)을 통해 생중계 되는 가운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주일 대예배 시 '주님의 부활'(고전 15:41~44)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다.

주일 저녁예배 시에는 '주님의 삶과 피'(요 6:53~55)에 관해 말씀을 전한 후, 성

찬식이 거행된다. 성도들은 주님의 삶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더욱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부활절을 앞두고 성도들은 주님의 탄생과 사역,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주님의 사랑과 부활이 담긴 사복음서를 묵상하며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보냈다. 3월 30일 금요일에는 한 끼 이상 금식하며 하나

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를 드렸다.

특히, 밤 11시부터 시작되는 금요철야예배 1부에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영의 세계(3)-천사②'(히 1:14)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였고, 2부에는 예능위원회 주관 부활절 공연, 「주님의 십자가」가 본당 특설무대에서 펼쳐졌다.

여선교회총연합회에서는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달걀을 아름답게 장식해 교회 주변 벤치타운과 노인정, 주민센터, 구로경찰서와 소방서 등 많은 관공서에 전달하며 복음을 전했다.

한편 아동, 학생, 청년, 가나안 등 각 선교회에서는 기관별로 예쁘게 꾸민 달걀을 서로 나누며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이뤄야 할 사랑의 마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지난 3월 25일, 주일 저녁예배 시 '2018 지역장·조장·구역장 헌신예배'를 드렸다. 이날 헌신을 다짐한 사명자들은 거주 지역으로 구분된 1대대(1~9교구), 2대대(10~21교구), 3대대(22~32교구), 그리고 중국교구(중국 동포 및 중국인 성도), 해외교구(국내 거주 외국인 성도)의 지역장, 조장, 구역장 총 1,650명이다. 광주, 구미, 대전, 마산, 밀양, 서부산, 천안 등 전국 43개 지교회에서도 함께했다.

헌신예배는 GCN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생방송 되는 가운데 남조장연합회 회장 신행철 장로의 사회, 여조장연합회 회장 이희승 권사의 대표기

도, 천안만민교회 구역장 계미경 집사의 성경 봉독이 있었다. 헌신자 대표자 특송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이어 헌신자 전체 특송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날 감사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사랑의 마음'(롬 5:8)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에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며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게 된다."라고 전제한 후, 우리가 이뤄야 할 사랑의 마음은 "첫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둘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셋째,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이라고 실례를 들어 전했다.

헌신자들은 소자라도 존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긍휼히 여김은 물론 희생과 헌신으로 살려냄으로 부흥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11)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아무 죄 없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굳건한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는 때가 이르매 공중에 다시 나타나셔서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마음의 성결을 이루고 충성한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1. 모든 것을 내어준 희생의 대가

부활은 주님을 믿는 모든 이에게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사건이며, 신앙의 핵심 요소입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시기 위해 먼저 죽음에 이르셔야 했습니다. 결국 십자가 처형으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적인 죽음을 맞으셔야 했고,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시며 자신

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자체부터가 피조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입니다. 또한 사역을 이루시는 동안에는 제대로 주무시거나 잠수실 시간도, 잠시 자신의 몸을 돌보실 시간도 없으셨지요.

이처럼 영광의 부활이 있기까지 그 이면에는 엄청난 희생이 있었음을 깨달아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희생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부활의 의미와 가치가 더 마음 깊이 새겨지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장차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천국에서는 이 땅의 희생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얼마어마한 상급과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 영원한 천국 삶이 주어지는 과정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극악무도한 채찍질에 살갗이 엉망이 되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의 흉악한 가시가, 양손과 양발에는 큰 못이 박혀 온몸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주무시지도 드시지도 못하여 아픈 몸은 앙상한 뼈에 가죽만 덮인 듯하였지요.

이러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여섯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으시다 결국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세마포에 싸여 새로 판 무덤에 장사되었고, 도무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제자들 앞에 부활체의 몸을 입고 나타나 대화를 나누셨고,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못 자국과 창 자국을 만져 보게 하셨으며, 제자들과 구운 생선도 함께 드셨지요. 그 후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의미

요한복음 11장 25~26절에 “...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아멘! 내가 믿습니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니 성도들 또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따랐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는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울리며 품에 안긴 어린 자녀에게 “우리 곧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지하 묘지 카타콤에 숨어 살면서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가슴 벅찬 하루하루를 보냈지요. 먼저 잠든 가족을 장사하면서 도 남은 사람들은 영원히 이별이 없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다졌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14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부활과 영생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종말과 소멸로 여겨지는 죽음조차도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했으니 주 안에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날마다 더욱 힘차게 천국을 침노해 가야 할 것입니다(고후 4:18).

3. 구원의 도 완성하는 하나님 섭리

고린도전서 15장 13~14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구원의 도가 완성될 수 없었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채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을 찍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전혀 죄가 없으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고는 결코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결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어떤 핍박이나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 다해 진리를 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통해 얻기 원하시는 참 자녀로 나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닮아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운데 굳건히 서서 진리를 행하며 순교의 신앙을 본받아 장차 영광스러운 부활의 열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 요시는 길**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는행 :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존경하는 이재록 목사님께

저는 아르헨티나 산띠아고 델 에스페로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조세피나 아르파사 목사입니다.

약 3년 전, 함께 사역하던 남편 후안 까를로스 목사가 소천하여 저는 사역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주님께서는 위로하시며, 제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셨지만 여전히 제 마음은 허전했고 영적으로 갈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엔라쎬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 만민중앙교회 주일예배였지요.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개인적인 간증과 함께 어떻게 치료받으셨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얼마나 강력한 믿음이 주어졌는지 만민의 사역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공간이 제게도 돌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네 남편은 나의 도움으로 치유의 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너는 치유의 사역을 이뤄갈 것이다. 대신 꼭 이 말씀, 이재록 목사의 가르침을 붙잡아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 이후 저는 매주일 엔라쎬 방송을 통해 당회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느껴졌고, 주님께서는 설교 말씀이 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지요.

주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던 류머티즘성 관절염, 임파선염, 대사증후군, 헤르니아, 신장병, 뇌하수체 종양 등 여러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참된 종이 치리하고 계신 영적인 제단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르헨티나만민가정교회 마르틴 목사님을 알게 되면서 간증 편지를 전달해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재록 목사님의 세계 선교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상상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 만민의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당회장님을 존경하며 사모합니다.

2018. 2. 6.
아르헨티나에서
조세피나 아르파사 목사 올림.



성령의 은혜로 충만했던 대만 타이베이, 가오슝 집회



대만의 타이베이와 가오슝, 두 곳에서 이희선 목사(만민 전 지교회 총지도교사)를 강사로 집회가 열려 참석하신 성도마다 감사와 기쁨, 믿음과 천국 소망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와 응답이 넘쳤다.

첫 집회는 3월 15일, 타이베이 소재 대만만민교회(담임 김경희 목사)에서 성령충만기도회로 드렸다. 성도들은 부여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여 심령이 새로워질 뿐 아니라 충만한 속에 마음 다해 온몸으로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의 기쁨을 만끽하였다.

이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강사 이희선 목사가 기도해 줄 때 왼손마비, 무릎 통증 등 질병은 물론 우울증 등 정신질환까지 치유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3월 18일에는 가오슝 소재 신잔만민교회(담임 야오란상 목사) 창립 4주년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가 있었다. 강사 이 목사는 ‘신뢰’(대하 20:2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뒤,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

그 결과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으로 인해 죽음의 위험 앞에 놓였던 야오위웬 성도(여·70)가 지난날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를 받을 때 모든 통증이 순간에 사라졌고, 쭈자오메이 성도(여·81)는 요추 손상으로 잘 걷지 못했으나 기도받고 통증이 사라졌고 지팡이 없이 자유롭게 걷게 되었다.

이 외에도 퇴행성 관절염, 공황장애 등 갖가지 질병이 치료되고 시력과 청력이 회복돼 많은 성도가 기쁨으로 간증함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사랑의 마음 ■ 부활 1
- 믿음의 분량 11-15 ■ 전도 1-2
- 십자가의 도 13-17 ■ 십계명 2-5
- 창세기 강해 54-59
- 요한일서 강해 35-39
- 요한계시록 강해 63-71

GCN TV설교

- 주인의 마음을 사원케 하는 자(이수진목사)
- 목자의 공간 (이희선 목사)
- 음기 강해 49 (신동초 목사)
- MIS 강의 43 (정구영 목사)
- 열매 (김수정 목사)
- 온 영의 흐름 잘 타기 (교경아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옛날 옛적에 (시즌2) 5
- 내 마음의 찬양 37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91
- 몽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게) 17

신규 프로그램

- 관능 1
- 아시아요 1
- 천지창조의 섭리 1
- 헬로우 기초영어 1



2017년 12월 9일(토) 밤 11시 20분경, 저는 갑자기 목덜미가 당기며 몸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급히 아내 이금화 권사에게 전화를 걸어 살려달라고 말하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매일 밤 9시부터 성전에서 열리는 다니엘절야 기도회에 참석하는 아내와 아들 수빈이가 황급히 집에 왔고, 저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119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뇌출혈이 두 군데나 있고 자가 호흡을 못하는 상태라 어떤 시술도 할 수 없어 저는 죽음 직전에 놓인 상황이 되고 말았지요.

의료진들이 응급 처치를 하는 사이에 제 소식을 전해 듣고 병원에 도착한 이달천 교구장님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시자 아내 자가 호흡이 돌아와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출혈을 막는 시술이 마쳐졌는데 의사가 '지주막하 뇌출혈'로 뇌동맥류가 팽창해서 두 번이나 터져 매우 위험한 상태이며, 이미 뇌에 손상이 왔으니 2~3주 동안은 중환자실에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니 아내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저의 구원을 위해 교구장님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지주막하 뇌출혈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유운중 성도 (56세, 2대대 10교구)

10일(주일) 저녁, 가족들이 저를 위해 산상에 계신 당회장님께 기도 요청 서신을 올려 드렸더니 제가 빠른 회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13일(수)에는 제가 의식을 되찾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실로 옮기게 되었고, 15일(금)에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이날 오후, 성탄절등식을 위해 교회에 오신 당회장님께서 제 사진 위에 손을 얹고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마비도 없게 하시며 온전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하시며 세세하게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후 머리가 빠개질 듯한 통증이 있을 때마다 아내가 제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당회장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를 들려주면

곧 사라졌습니다. 회복도 빨라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던 머리 통증도 말끔히 사라졌고,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를 받을 때마다 더 호전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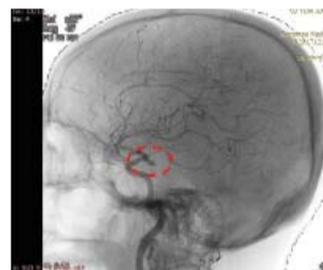
마침내 2018년 1월 12일(금), 몸에 전혀 이상이 없어 퇴원하였는데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놀랍습니다. 의사는 뇌 손상으로 인해 분명 후유증이 나타나 몸에 마비가 올 것이라고 했음에도 막상 저는 후유증도 없

고, 어떤 마비 증상도 전혀 없이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영육 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온전한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은 물론, 남장년 모임과 기도회 등 각종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여 성령을 받고 방언도 받았으며 기도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에 등록하긴 했으나 지난 25년간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술, 담배도 끊지 못한 저를 오래 참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하고 죄송하며, 가족에게도 고마워서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 평안이 임하고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지주막하 뇌출혈’을 후유증 하나 없이 신속하게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나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뇌혈관 조영술



▲ 기도받기 전 : 우측 전뇌동맥 기시 부위에 동맥류가 보이고 있음.

CT 촬영



▲ 기도받기 전 : 우측 전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 소견을 보이고 있음.



예무나 성도 (24세, 인도 첸나이만민교회)

“태중에서 심장박동을 하지 않던 아기, 권능으로 살아났어요!”

저는 원래 힌두교도입니다. 2014년 결혼 후 시어머니의 권유로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되었지만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웃인 니샤 집사의 전도로 2014년 5월부터는 첸나이만민교회에 다니게 되었는데 이때도 주말이 되면 교회보다는 친정에 가기를 더 좋아했지요.

그해 9월, 저는 임신 5개월이라 정기검진을 하러 갔다가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아의 심장박동 소리가 들리지 않고 태동이 없어 생사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기가 사산된 것은 아닌지 불안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제게 니샤 집사는 자신의 간증을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난산 가운데 미숙아로 병약하게 태어났으나 교회에 출석하면서 건강해졌고, 둘째 아들은 임신 당시 태중에 양수가 부족하고 너무 작아 살아날 확률이 적었으나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했지요.

저는 니샤 집사의 간증을 듣고 믿음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교회에서 열린 손수건 집회에 참석하여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받은 손수건(행 19:11~12)으로 한정희 담임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습다. 그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중

에서 움직임이 전혀 없던 아기가 곧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셨지요. 의사는 다행히 태아의 심장박동이 되돌아왔지만 아기가 너무 작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았고, 2015년 2월에 건강한 딸을 출산하였지요.

이제 세 살이 된 딸 제나니는 건강하고 사랑스럽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손수건에 권능을 담아 기도해 주신 당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릉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남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 충청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3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248-2251
-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 감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 안산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485-9143, 010-6395-0143
-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421-0889, 010-8927-2073
-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